

동남아, 전주 전통·생활 축제 관심

호찌민 국제관광엑스포서 현지여행사들, 전통문화체험·축제 연계 전주여행상품개발 "관심"

“한국전통문화와 생활문화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여행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지여행사와 FIT들의 관심이 한국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주에 쏠리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유치를 위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TPO(아시아태평양양도시관광진흥기구)와 회원도시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호찌민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해 전주홍보관을 운영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관광업체와 1: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베트남 관광시장 개척에 나섰다.

베트남관광청과 호찌민시 문화관광국이 주최하고 캄보디아 관광부,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태국 체육관광부 후원한 제13회 호찌민 국제관광엑스포에는 베트남 현지 여행사와 항공사 등 관광업체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국가와 독일 등 유럽국가 32개국 250개 기관과 여행업체 3만여명이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TPO(아시아태평양양도시관광진흥기구) 회원도시인 전라북도 와 전주시를 비롯해 부산시, 부산시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통영시, 안동시, 거제시, 고양시, 김해시, 울산 울주군 등 11개 회원도시가 참가했으며,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이 운영되었다.

베트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0%대의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7월 까지도 전년동기 대비 방한 관광객이

29.3% 증가하는 등 최근 중국지역 방한시장 위축에 따른 시장다변화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TPO 회원도시와 공동으로 호찌민을 찾아 전주홍보관을 운영하고 여행사 등 관광업체와 1:1 맞춤형 관광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주여행상품개발과 베트남 FIT(개별자유여행객) 관광객 유치 홍보전을 전개했다.

전주시가 운영하는 홍보관에는 전주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려는 베트남 현지 아웃바운드여행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호찌민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한 여행사와 관광업체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전주여행에 대한 정보를 묻는 FIT 관광객들의 상담으로 북적거렸다.

베트남 현지 아웃바운드여행사와 항공사, 언론사 등을 초청한 TPO 관광교역전과 전주관광상담회에는 사이공 투어리스트와 비에트레벨 등 50개사 100여명이 참가해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목적지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축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교환하고 올 하반기 상품개발과 내년 여행상품에 대해 협의를 벌였다.

특히 이들 베트남여행사들은 전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도시로 인식하고 전주한옥마을과 연계한 한옥·한복·한식 등 전통문화체험과 연꽃군락지인 덕진공원 여름 테마여행상품, 유네스코 전주여행상품, 전통시장투어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8월 가막축제와 9월 세계소리축제, 10월 비빔밥축제 등 계절별 전주 축제와 연계한 여행상품 구성과 참여에도 관광상품개발 의지를 보였다.



전주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TPO(아시아태평양양도시관광진흥기구)와 회원도시와 함께 베트남 호찌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린 호찌민 국제관광엑스포에 참가해 전주홍보관을 운영하고 현지 관광업체와 1:1 상담회를 개최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유치를 위한 타깃 니즈가 한국적 전통문화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테마관광상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상품으로 한옥·한식·한복·한지체험을 연결한 전통문화체험관광상품과 가막축제와 비빔밥축제 등 축제 연계상품, 전주한옥마을과 덕진공원 여름 연계상품, 전주향교와 경기전의 가을, 전주한옥마을의 겨울, 전주남부시장 청년들과 아시아, 마걸리, 가막을 연결한 전주만의 차별화된 생활을 식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여행사와 시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전주시가 베트남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베트남 호찌민 국제관광엑스포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전주와 한국전통문화체험에 관한 1박2일 이상 체류형 테마상품개발과 운영에 대한 니즈를 확인하였다”면서 “전주다운 전통문화체험, 생활문화체험상품을 만들어 조만간 TPO 회원도시 공동 관부어,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팔복동 추천2길, 주민들 손길로 새단장

팔복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도색

파손된 담장 등 낡고 칙칙했던 전주시 팔복동 추천2길이 마을주민들의 손으로 환하게 바뀌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팔복동 추천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중인 팔복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11일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추천2길 골목길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골목길 새단장은 팔복새뜰마을

주민들이 지난 5월 주민주도 담장도색을 통해 추천3길을 가꾼데 이어, 마을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골목길을 가꾸고 이웃간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됐다.

팔복새뜰마을 주민들은 서늘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끼지 않은 골목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에 임했고, 도색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챙

기면서 도색이 진행되는 내내 오랜만에 활기차고 생기있는 골목길이 되었다.

주민들은 또 파손된 담장과 공간에 예쁘게 색을 입히면서, 이웃집의 담이 나의 길이 되고 앞집 뒤뜰이 나의 앞마당이 되는 등 삶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

비록 쇠뿔하고 노후화된 건물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이지만, 예쁘게 채색된 담장은 활력과 함께 주민들의 마음과 소박한 여유로움을 이어주는 골목길이 되기에 충분했다. /김민근 기자

보일러 흠친 40대 입건

덕진경찰서는 11일 절도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9시 10분경 전주시 덕진구 송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일러작업을 위해 적재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40만원 상당의 보일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곳 아파트 단지 공사 인부로 일하면서 적재해둔 보일러를 보고 자신의 집에 설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전통시장 사진전 공모

신중앙시장, 10월 13일까지 접수

전주지역 전통시장의 활기찬 모습과 따뜻한 상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으는 시민공모전이 열린다.

전주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단과 전주신중앙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7회 전주 시민이전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전주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촬영한 작품을 오는 10월 13일까지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으

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은 선정된 수상자들에게는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금상(1명) 70만원, 은상(2명) 50만원, 동상(3명) 30만원, 장려상(5명) 10만원, 입선(30명) 5만원이다.

수상작은 향후 신중앙시장 내 소담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신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인터넷 블로그(blog.naver.com/pkcut02) 또는 전주신중앙시장상인회(063-274-753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철거된 전주중앙초 담장자재 시민들에게 나눠줘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중앙초등학교 담장이 한옥형으로 교체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기존 담장 자재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담장틀과 벽돌을 나눠줬다.

전주시는 전주중앙초등학교 담장 재활용 신청을 접수한 총 18명 중 현재까지 10명에게 철거된 담장을 60개와 벽돌 등을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담장틀과 벽돌을 배부 받은 신청자들은 차이나거리 미술관 인테리어와 민화박물관 담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한 중앙초등학교 졸업자는 모교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건물 인테리어 등에 모교의 담장이었던 벽돌을 활용키로 했다.

/김민근 기자

10대 의붓딸들 학대·추행 계부 실형

10대 의붓딸들에게 억지로 고추를 먹이고 폭행을 일삼고 추행한 계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대 의붓딸 2명과 밥을 먹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추를 먹이고 때리는 등 수시로 체벌을 이유삼아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적이 떨어졌다”, “빨래가 마르지 않았는데 걸었다”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의붓딸들을 여러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군산 서해안고속도로서 12중 추돌사고

11일 오전 4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대명터널 부근에서 차량 1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45)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어 119구조대가 출동해 인근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

다.

경찰은 B(36)씨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을 뒤따라오던 차량 11대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